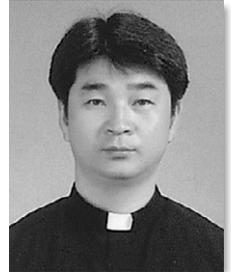


주일의말씀

유혹에 대한 승리를 높이자!

김명섭 그레고리오 신부
불로성당 주임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빵을 택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하느님을 경배해야 할 것인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절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유혹입니다.

복음 속의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처럼 유혹을 잘 이겨냈을까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관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무렵,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요한8,7) 그 말씀을 듣고는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꽤나 자주 다가옵니다. 그리고 유혹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그랬듯이,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이 그랬듯이, 어떤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늘 하느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지 못함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수난의 여정을 묵상합니다. 비록 유혹에 대해 늘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유혹에 대한 승리를 높이면서 여느 때 보다 자주, 하느님 편에 서는 모습으로 지내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2차 시노드 개막미사

“새 시대, 새 복음화” 새 시대 복음화를 위한 전망과 성숙한 교회 공동체 실현

◆ 일시 2011년 4월 8일(금) 저녁 7:30 ◆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



19. “사랑은 만능이다.” - 제 6대 교구장 최덕홍(요한) 주교님

문화홍보실

제 6대 대구교구장이셨던 최덕홍(요한) 주교님은 6·25사변이 터지기 불과 몇 개월 전에 교구장좌에 오르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주교님께서서는 6년도 채 되지 않는 재위 기간에 초인적인 힘으로 교구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셨습니다. 주교님의 사목 표어인 ‘사랑은 만능이다(Caritas et Omnia)’가 마치 예언처럼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최 주교님의 업적을 돌아해보면 이것이 과연 그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이 해 낸 일이 맞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폐간된 천주교회보를 다시 펴내시고, 1950년에는 매일신문을 인수하셨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전신인 효성여자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톨릭 교육기관을 설립하셨습니다. 베네딕도대수도원이 왜관에 정착한 것도, 경상남도에 감목대리구가 설정된 것도, 최덕홍 주교님께서 재위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도 정신이 없었을 때에 놀라운 용기와 지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구대교구의 모양을 만드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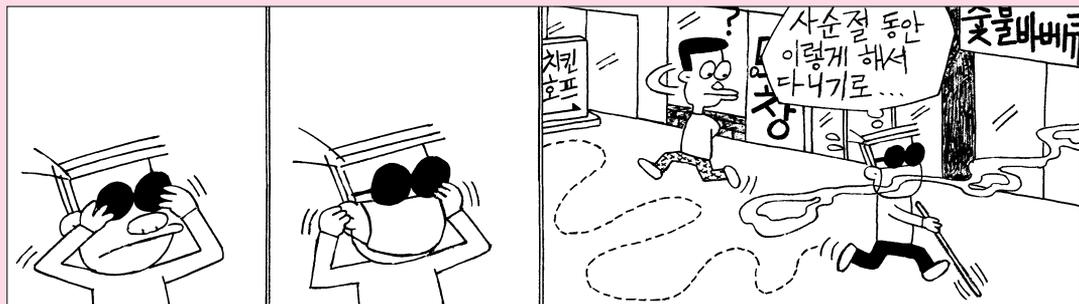
어쩌면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넘어 보이는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초대 드망즈 주교님께서 하셨던 것과 꼭 같이, 최덕홍 주교님도

몹시 편찮으신 가운데 경상북도 북부지방으로 사목 순방을 떠나셨습니다. 하루에 사오백리 길을 달려 본당과 공소를 찾으시고 사제들과 교우들을 만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몸져누울 만한 고된 일정 끝에 11월 24일 저녁 해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들이 주교님을 진찰해 보니, 온몸에 암이 번져 있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몸으로 대체 어떻게 업무를 보셨으며, 게다가 사목 방문까지 떠나셨습니까?”하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최덕홍 주교님은 “주교의 직무를 맡아 책임을 다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나 모를 불만이 있으면 다 용서해주시시오. 모든 신부님들은 서로 화목하고 성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그리고 항상 기도 중에 서로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1954년 12월 14일, 병석에 누운 지 고작 20일 만에 선종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병든 몸을 이끌고 생명을 불살라 주님 백성을 이끄신 주교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힘은 무엇이든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만능의 힘, 사랑입니다.

유혹에 안 빠지려고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사순 제주일

입당성가

121 한 많은 슬픔에

화답송

◎ 주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봉헌성가

514 주여 대령했나이다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파견성가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홉

영성의 향기

:: 주님께서 우리 청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간절히 청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느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지만, 우리가 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시기보다는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은혜를 주려고 미루시는 경우입니다.



어린 아들이 칼을 사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는 마다하고 마냥 놀고 싶어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주님께 조르기도 하는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인 우리는 그런 때에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짜증을 부리거나 떼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보다”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어린 아들이 칼을 사 달라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는 마다하고 마냥 놀고 싶어 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주님께 조르기도 하는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철없는 자녀들인 우리는 그런 때에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짜증을 부리거나 떼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보다”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누구 마음에 더 들어야 할까?



종교분열을 일으킨 영국 왕 헨리 8세가 한번은 어떤 신부님의 강론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부님은 왕명을 어길 수 없어 강론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임금님께서 제 강론을 듣고 계십니다. 제 목숨을 뜻대로 처분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제 강론을 듣고 계신 또 한 분의 어른이 계십니다. 온 우주의 임금 이시고, 제 목숨 뿐 아니라 제 영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 강론이 두 어른의 마음에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더 큰 어른의 뜻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유평은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20(일)은 故 박도식(도미니코)신부 8주기입니다.

성소 / 피정

예비신학교 입학미사
일시: 3.20(일) 14:00,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 미사안수)
일시: 3.16(수) 13:00~17:00, 지도신부: 강요셉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조이플 스테이
일시: 3.26(토) 17:00~27(일) 15: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상: 미혼여성
문의: (010)2649-2045(성경, 세면도구)
※개인피정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올리베라노 성베네딕도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3.20(일) 14:00, 가톨릭여성교육관
문의: (010)9510-1131

뜻쟁 포교베네딕도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일 11:00 미사
장소: 대구 분원
문의: 313-3431 / (010)8519-3431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3.20(매월 셋째주 주일) 14:0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대구 분원
문의: (010)2717-0363

더 나는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대구287차: 4.8(금) 19:00 ~ 10(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473-5712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빈첸시오아바오로 사랑의말회 성소모임
모임시간: 14:00 (매월 셋째 주일)
장소: 군포수녀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성당 옆)
문의: (010)6625-0927

영원한 도움의성모수도회 사순피정
일시: 3.19(토) 10:00 ~ 3.20(일) 16:00
장소: 인천 가정동 기도의집
대상: 가톨릭신자미혼여성(회비: 3만원)
문의: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016-332-2885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3.19(토) 14:00~17:00
장소: 서울 가양동 수도원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사도직에 관심있는 청년, 미혼남성
문의: (010)3800-1579 (vocationoh@hanmail.net)

모집 / 교육

2011년 1학기신학교육원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일반과정, 영성상담, 사회교리
복음화스피치, 기초 성경그리스어
봉사자 교리교육, 참된 행복의길
성경읽기방법론, 요한묵시록, 신구약성경입문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수도자와 평신도를 위한 집중 전례음악 연주
일시: 3.14(월) 17:00~16(수) 점심식사
참가비: 수도자 15만원, 평신도 17만원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 (010)5442-6112

제2기 '와인 제대로 즐기' 과정 모집
기간: 3.15(화)~12주 (주1회/화,2시간) 20만원
내용: 기초부터 쉽게 (오전, 야간) 시음비별도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 중구(매일신문)분원
대상: 와인관심 일반인, 대학생, 직장인
문의: 526-3413 / (010)3569-1718

2011년도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일시: 3.19(토) 14:00
장소: 월배수도원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문의: 632-9800 / (011)9594-9441

9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 및 어학연수
기간: 3차 3.26(토) 출발, 8주, 12주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4기 모집
설명회: 3.26(토) 15:00, 접수: 3.26~
회화전담강사 전형대비, 무료어학연수
미국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자녀동반유학시 자녀학비무료
문의: 526-0111 (http://tesol.cu.ac.kr)

가톨릭 요셉발간강회 강좌 '밭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반 개강
개강: 4.4-6.17 (월, 목, 토요일반)
접수: 3.25(금)까지 (내방접수)
장소: 교구청 교육원 가동 3층, 255-7221

가톨릭문화관교육생 모집 (476-6211)
바이올린/플룻/POP/전연비누와 화장품 만들기

안내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혜순(헬레나), 홍순봉

3월 가나강좌 (1인당2만원, 당일접수)
일시: 3.20(일) 10:00~17:0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미사	일시	장소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오전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4일(월) 오전11시	3대리구청-월성성당

미사	일시	장소
구미지역 공중후원회 미사	3월 14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14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15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결혼정보회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범어네거리
엘리트 미혼 남녀의 코리아 뉴영남
결혼을 상담합니다. 앞트만 호 텔
(주)코리아아트만 그랜드
박복순(오스트리아) 호 텔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라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료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한신주택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넬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냉동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매대) 011-529-7501

3대를 전통과 신도불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랑들
"경육과 다양한 제품류"
● 노인생활, 생약(70년), 수험생
캠년기 여성교우님 특별 우대
웰빙건강식품, 각종 선물류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 428-8002, 011-528-8008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로로), 이준엽 · 김영섭(베드로) 외 2인
들안길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이연재 (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금 · 보석 · 시계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대표 임종화(바실리오)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 3번출구 대구역방향
☎ 423-6336, 011-809-3003

28년 전통성가정의 만남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실(마리아)